



신문협회 제360차 이사회...파이낸셜뉴스 회원 가입 승인

발행인 세미나, 'AI시대 뉴스 활용 전략' 모색

신문협회는 지난 11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구 현대호텔)에서 제360차 이사회를 열고 파이낸셜뉴스(발행인 전선익)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신문협회 회원사는 현재 54개사에서 모두 55개사로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는 2000년 6월 23일 창간했으며, 직원은 기자 151명을 포함해 모두 217명이다. 매출액은 398억 2,900만 원(2024년 기준)이며, 월 구독료는 2만 원이다. 파이낸셜뉴스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사회에 이어 신문협회 창립 69



주년(6월 29일) 기념 발행인 세미나(사진)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뉴스 콘텐츠 활용 전략'을 주제로 강수진 성균관대 영상학과 겸임교수(더 프

로프트 컴퍼니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강 대표는 뉴스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AI 모델 활용 사례와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전략을 소개했다.

신문사	파이낸셜뉴스		
창간일	2000년 6월 23일	자본금	60억 원(2024년 기준)
발행인	전선익	구독료	2만 원(월)
직원 수	217명(기자 151명)	홈페이지	www.fnnews.com
매출	398억 2,900만 원(2024년 기준)	대표전화/주소	02-2003-711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5

“AI 뉴스 무단 활용, 언론계 연대해 대응해야”

세계신문협회(WAN) 제77차 연차 총회가 지난 1~3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렸다. ‘떠오르는 목소리, 다가오는 위험, 영감을 주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65개국 1,300여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미디어의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차기 총회는 2027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글로벌 무대에 선 한국 신문들

올해 총회에서는 국내 신문사들의 AI 도전과 혁신 사례가 소개돼 국제 미디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서해송 아주미디어그룹 영문 뉴스 통신사 AJP 편집국장은 3일 ‘AI가 바꾸는 뉴스 경험’ 세션 발제자로 나서 한국형 AI 네이티브 통신사 모델을 소개했다. 아주경제는 자체 시스템 ‘AI 픽(AI Pick)’을 통해 하루 약 300건의 기사 중 일부를 선별해 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영어 등으로 자동 배포하고 있다. 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후 해당 언어권 발행량은 10배, 영어 트래픽은 30% 증가했다. 서 국장은 “현재 모든 거대언어모델(LLM)이 영어 중심으로 구축돼 아시아의 모습이 서구 시각의 데이터로 서술되고 있다”며 “아시아

세계신문협회 연차총회 폐막...차기 총회는 스웨덴 스톡홀름서



서해송 AJP 편집국장이 ‘AI가 바꾸는 뉴스 경험’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셀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이 총회 개막연설에서 AI의 뉴스 무단 이용을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모하메드 살렘 기자가 황금펜상 수상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내부에서 AI가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사를 쓰는 ‘아시아 영어 통신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어워드(DMA)의 ‘세계 최고 AI 뉴스 제품’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국내 언론사가 이 대회 글로벌 본선에 진출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LINK는 △기자의 기사 작성을 돕는 ‘AI NOVA’ △독자 맞춤형으로 뉴스를 큐레이션하는 ‘AI PRISM’ △텍스트 기사를 영상으로 바꾸는 ‘AI WAVE’ △한글 기사를 영어로 옮기는 ‘AI GLOBE’ 등을 묶어 구축한 AI 생태계다. AI LINK는 NYT의 탐사보도 도구인 ‘치트시트(Cheatsheet)’, 스위스

링기에르(Ringier AG)의 성평등 분석 도구 ‘이퀄보이스 어시스턴트’, 조지아 저널리즘리소스센터(JRC)의 ‘AI뉴스(AINews)’, 레바논·이집트 협업작 ‘프레이밍 가자(Framing Gaza)’ 등과 경쟁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NYT 회장,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비판

1일 개막 기조연설에서 AG 셀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 겸 발행인은 AI 기업들의 무단 콘텐츠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의 성공에는 인재, 컴퓨팅 자원, 에너지,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AI 기업들이 인재·컴퓨팅·에너지

에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언론사 콘텐츠는 동이나 보상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즈버거 회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정보와 목격자 증언, 비공개 문서, 전문가 분석 등이 공공 기록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대중이 아는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러한 고유 취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기존 정보를 분석하고 재구성할 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검증하지 못하므로 결국 언론이 생산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시대 언론사의 대응 전략으로 △언론사들이 권리를 적극 주장할 것 △AI 기업과 계약은 신중할 것 △임금을 요구할 것 △언론계가 함께 연대할 것 △올바

른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것 △독자의 우선 목적지가 될 것 △독창적 보도에 집중할 것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알릴 것을 강조했다.

가자지구 언론인들 ‘황금펜상’ 수상

올해의 황금펜상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널리즘의 사명을 다한 가자지구 사진·영상 기자들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모하메드 아베드(AFP), 파티마 슈바이르(AP), 모하메드 살렘(로이터 통신) 기자다. 황금펜상은 매년 언론 자유 수호에 기여한 언론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자(200명 이상 추정)가 목숨을 잃었지만, 글로벌 통신사 현지 기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적인 보도를 이어왔다. 데이비드 왈름슬리 세계편집인포럼 회장은 “동료와 가족의 죽음 등 온갖 역경과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들에게 상을 수여한다”며 “이들의 노력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이들이 남긴 기록은 역사적 증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 세계신문협회 연차총회를 다녀와서

“공짜 저널리즘은 없다. AI에 콘텐츠 값을 받아라”

기고

우승호

서울경제신문
미래전략부 부국장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제77회 세계뉴스미디어총회(WNMC)가 열렸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주최한 이 자리에 60여 개국에서 1,300여 명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모였다. 공식 슬로건은 ‘떠오르는 목소리,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 영감을 주는 미래’였고, 사흘을 관통한 화두는 ‘AI’와 ‘수익’이었다. ‘AI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AI로 어떻게 돈을 벌고, 빅테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콘텐츠, 더 이상 공짜 아니다

A.G. 설즈버거 뉴욕타임스(NYT) 회장의 기조연설은 단호했다. AI 기업이 기사를 허락도, 보상도 없이 ‘노천 채굴’ 하듯 긁어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NYT는 이미 2,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와의 소송에 쏟아 부었다. 그는 “AI 활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AI가 베낄 수 없을 만큼 고유한 중력을 지닌 저널리즘”을 강조했다.

세션에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행사가 가격과 조건을 정하면 AI가 쓴 만큼 값을 치르는 ‘발행사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였다. 미디어가 빅테크와 직접 협상을 체결한 사례도 소개됐다. 르몽드의 루이 드레퓔스 회장

은 오픈AI·퍼플렉시티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무대에 올랐다. 오픈AI는 가디언·악셀슈프링거와, 메타는 USA투데이·CNN 등 미국 매체와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 NYT는 오픈AI·MS와 법정 싸움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아마존과 연 2,0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고 손을 잡았다.

싸우면서 동시에 협업하는 투트랙 전략, 그것이 올해 총회가 보여준 업계의 자화상이었다. ‘AI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묻던 총회가, ‘AI에게 어떻게 대가를 받을 것인가’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물쳐야 제값 받는다

라디나 하임가르트너 WAN-IFRA 회장은 “기사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정작 AI가 그 기사를 가져다 팔 때 보상받지 못한다면 미디어 생태계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에 제값을 받는 일은 저널리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에서 “물쳐자”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설즈버거 회장은 “물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WAN-IFRA는 영국 BBC·파이낸셜타임스(FT)·가디언 등이 결성한 AI 라이선싱 표준 연합(SPUR)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날 미디어들이 새로 대거 합류하면서 회원사는 총 36개사로 확대됐다.

또 전시장 한쪽에서는 AI 봇이 기사를 크롤링할 때마다 요금을 매기는 톨비트(TollBit), AI 답변에 인용된 만큼 광고 수익을 나누는 프로라타(ProRata) 등 과금 기술 업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 파로 궁전 대강당을 가득 메운 1,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A.G. 설즈버거 뉴욕타임스(NYT) 회장의 개막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설즈버거 회장은 ‘AI, 저널리즘, 그리고 공적 광장의 불확실한 미래’를 주제로 AI 기업이 기사를 허락도, 보상도 없이 긁어가는 행태를 ‘악탈’에 빗대며 정당한 대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구했다.

가 부스를 차렸다. 개별 매체로 협상할 것인가, 뭉쳐서 협상할 것인가와 함께 크롤링 단계에서 과금할 것이냐, 답변 인용 때 과금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무기’는 유럽에만 있고, 한국엔 없다

르몽드가 빅테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지만, 르몽드가 처한 현실과 한국 미디어의 현실은 격차가 크다. 르몽드와 FT가 AI 기업들과 협상을 통해 대가를 받아낸 힘은 ‘협상 기술’ 보다는 ‘제도’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EU는 저작권 지침으로 언론사에 ‘인접권(언론 발행자의 권리, press publishers’ right)’이라는 법적 무기를 쥐여줬고,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유럽 미디어들은 그걸 무기로 AI 기업과 당당하게 협상이 가능하다. 유럽 발행인들은 구글의 ‘AI 개요(AI Overviews)’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다며 경쟁당국에 제소했고,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별도 사건에서 인접권이 AI의 콘텐츠 이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접권이 없

다. 거기다 한국은 네이버·다음을 중심으로 한 라이선싱 방식이어서 구조도 다르다. 결국 르몽드와 같은 계약서를 내민다고 해서 협상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빅테크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 그 해답은 한국 미디어가 찾아야 할 몫이다.

그래도,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무기가 없지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첫째, 표준 연합 참여다. SPUR은 법이 아니라 회원제로 움직인다. 이번에 WAN-IFRA와 손을 잡았다. 한국 매체와 신문협회가 동아시아 첫 참여자로 합류해 ‘값을 정하는 자리’에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 기회다. 스티그 외르스코우 WAN-IFRA 최고경영자(CEO)는 “표준을 물려받기보다 직접 만드는 쪽에 선점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수익 다변화다. 올해 총회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 매출 가운데 이벤트·B2B·콘텐츠 라이선싱을 묶은 ‘기타’가 25.4%까지 올라갔다. 5년 새 두 배

로 커졌다. 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지금 시도해 볼 만한 영역이다.

셋째, ‘팔 수 있는 자산’을 다듬는 일이다. 영문과 전문 콘텐츠, ‘기자의 취재’라는 신뢰는 AI 시대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다.

넷째, 측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AI 답변이 기사를 얼마나 인용하는지 보여주는 무료 측정 도구도 이미 나와 있다. 무엇을 협상할지는, 우리 콘텐츠가 어디서 얼마나 쓰이는지 아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 상황은 개별 매체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WAN-IFRA가 SPUR와 손잡은 것은 ‘협회’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AI 시대 라이선싱과 표준 대응에서 신문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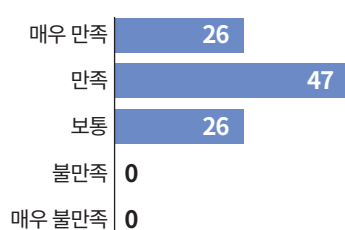
설즈버거 회장의 경고도, 마켓플레이스의 등장도 결국 한 곳을 가리킨다. 콘텐츠에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면 저널리즘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AI가 기사를 가져가 답을 만들어 파는 시대, 한국 언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저널리즘 연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

신문협회의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실무 온라인 연수가 지난 5월 28일 끝났다. 디지털 저널리즘 연수는 회원사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 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지난 5월 19일과 20일, 28일 총 3일간 실시됐다.

협회가 연수에 참가한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73%)’고 답했으며 ‘보통(2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실

연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무(취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데이터 활용 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78%)이 많았다.

다만, 온라인 연수의 특성상 강사와의 소통이나 질의응답이 원

활하지 못한 점(44%)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참가자들은 향후 희망하는 연수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스룸 실무 및 자동화 기사 작성(30%)을 꼽았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의 최신 디지털 구독 모델 및 수익화 성공 전략(26%) △숏폼(Short-form) 비디오 등 뉴스 플랫폼 다각화 및 영상 저널리즘(23%)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및 인포그래픽 제작 실습(19%) 순으로 조사됐다.

신문협회 ‘NIE 패스포트’ 접수 마감

신문협회가 지난 5월 26일부터 진행한 ‘2026 신문으로 만나는 ‘K컬처’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 신청 접수가 지난 8일 마감됐다. 패스포트는 신문 기사 등을 읽고 활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해력(文解力)을 향상하기 위한 NIE 워크북이다. 모집인원은 초·중·고 각각 3천 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643명), 부산(671명) 순이었다.

협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중순 패스포트 워크북을 발송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NIE 워크북에 제시

구분	초등	중등	고등	합계(명)
서울	672	897	630	2,199
인천·경기	860	614	830	2,304
강원	233	134	39	406
대전·충청·세종	314	378	430	1,122
대구·경북	296	243	219	758
부산·울산·경남	386	592	210	1,188
광주·전라	164	88	497	749
제주	68	24	129	221

된 12개의 활동 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뉴스 정보를 찾아 수행한 후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 9월 30일(수)까지 신문협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NIE 패스포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징벌적 손해제 골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커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표>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액 재량 결정을 징벌적 배상과 결합 시, 재량으로 결정된 5,000만 원의 5배인 최대 2억 5,000만 원의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재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비례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권력 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 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 규제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발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표>도 지난 5월 27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허위조작보도’로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판결 등이 확정된 허위조작보도를 2회 이상 반복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정보도 청구 및 게재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정정보도 등 청구기간을 현행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확대했다. 정정보도 등 게재위

구분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적용 대상	월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로 고의적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 배상
분쟁 조정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담기구(분쟁조정부) 운영
과징금 부과	영리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구분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내용
‘허위조작보도’ 정의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또는 제작물,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손해배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인용 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또는 유죄판결로 확정된 언론보도 등을 2회 이상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정보도 등 청구기간	언론보도가 있는 후 2년 이내
정정보도 게재 방식	1) 신문: 언론보도 등이 게재되었던 지면(紙面)의 좌상단에 게재할 것 2) 인터넷신문: 첫 화면의 최상단과 이용자가 정정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
정정보도 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확인 화면” 마련 및 첫 화면에 연결되는 안내 표시

지도 신문은 원 보도가 실린 지면 좌측 상단에, 인터넷신문은 첫 화면 최상단에 게재하도록 구체화했다. 더욱이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에 “정정보도 확인 화면”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 최상위에 정정보도 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했다.

뉴스룸의 새로운 생존 전략 ... ‘멤버십’ 넘어 ‘소속감’으로

미국 하버드대 저널리즘 연구기관 니먼랩은 지난 5월 12일 데일리 매버릭(Daily Maverick), 텍사스 트리뷴(The Texas Tribune), 디 차이트(Die Zeit) 등 해외 언론사들의 독자 참여 확대 전략을 소개했다.

데일리 매버릭

탐사 및 정치 분석 보도로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일리 매버릭은 지난해 가을 웹사이트 내에 ‘데일리 매버릭 커넥트(Daily Maverick Connect)’라는 독자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 플랫폼은 독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강화를 목표로 전문가 교류, 지역 커뮤니티,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주제의 ‘허브(Hubs, 네트워크 중심지)’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독자들은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기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기자들은 커넥트에 게시된 글을 읽고 이

용자들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커넥트 대부분의 기능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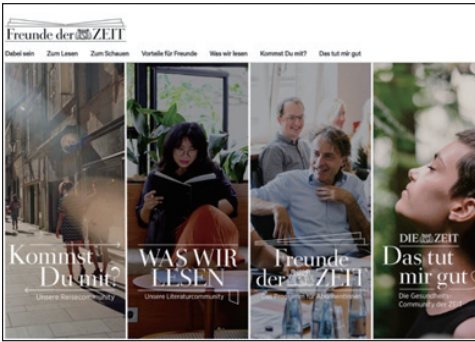
뉴스레터·커뮤니티·이벤트 등 독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충성 독자 확보

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콘텐츠만 유료 회원에게 제공된다. 커뮤니티 매니저인 사라 호크(Sarah Hoek)는 “독자들이 단순히 기사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보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와 독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트리뷴

텍사스 트리뷴은 연례행사인 ‘트리뷰페스트(TribFest)’와 지역 기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커피(Community Coffee)’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트리뷰페스트는 “Texas Tribune Festival”로, 텍사스 정치·정책·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열리는 대규모 공공 포럼이자 독자 커뮤니티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해마다 독자·정치인·언론인·학자·기업 리더·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천 명이 참석한다. 또한 정치·정책 토론, 기자와 정치



디 차이트의 다양한 커뮤니티

인의 인터뷰, 독자와 기자의 대화 등 100개 이상의 대담 세션이 열린다. ‘커뮤니티 커피’는 지역 주민들과 정계 인사, 언론인들이 한데 모여 커피를 마시며 교류하는 행사다.

이러한 대면 이벤트는 독자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언론사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 차이트

독일의대표적인주간시사신문인디 차이트(사진)는 정기적인 소규모모

임과 대도시 순회 행사인 ‘레저팔라멘트(Leserparlament)’를 운영하며 독자공동체를 구축한다. 레저팔라멘트는 독일 주요 도시의 대형 극장이나 문화 공간에 수백 명의 독자를 초청해 기자와 대화·토론하는 대규모 이벤트다. 연간 2회 개최한다.

벤케 차나카키스 총괄책임자는 “이벤트는 소속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독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직접 만나 기사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나누며 저널리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독자와 언론사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구독을 단순한 콘텐츠 이용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인식하게 한다.

디 차이트는 뉴스레터도 독자 커

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한다. 매주 발행하는 도서 뉴스레터는 매월 수천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으로 이어지며, 독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독자 소속감 형성 위해 훌륭한 저널리즘과 신뢰가 필수

언론사들은 독자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과 독자 신뢰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 매버릭은 독자들이 단순히 언론사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공동의 사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디 차이트는 대도시 외 지역 독자와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웨비나 등을 통해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를 쌓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 역시 설명 기사와 가이드를 통해 독자들이 주요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쓰고 있다.

“콘텐츠 생산 기준을 뉴스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일보 창간 72주년 기념식

한국일보(발행인 이성철)는 지난 9일 본사에서 창간 7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성철 발행인은 “변화에 따라 우리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정통 미디어로서 치열한 스트레이트 경쟁을 계속할 것이고 심층

탐사보도에 집중하며, 시대적 어젠다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사라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분량, 제목, 문체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며 “모든 콘텐츠의 생산 기준을 뉴스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이병규 신문상’ 제정



문화일보(발행인 김병직)는 지난 9일 이병규 명예회장(사진)의 언론 철학을 기리고, 문화일보의 위상을 높인 우수 사원을 선정하기 위해 ‘이병규 신문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이 명예회장의 특별공로

금 10억 원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문화일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명예회장에게 특별공로금 10억 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문화일보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이 명예회장의 뜻을 따라 ‘이병규 신문상’을 제정한 것이다.

이병규 신문상은 매년 문화일보 창간일(11월 1일)에 수상자를 선정

해 시상한다. 시상 부문은 △대상(1명 또는 단체, 1,000만 원) △우수상(2명 또는 단체, 500만 원)이며, 수상자에게 사내 해외연수 대상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명예회장은 제45, 46대 한국신문협회 회장(2016년~2019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신문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300만명 달성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지난 8일 지역 언론 최초로 모바일 구독자 3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일보 채널의 연간 순방문자수는 8,000만 명, 연평균 페이지뷰는 2억 뷰 이상이다. 강원일보는 300만 모바일 독자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프리미엄 콘텐츠 기반의 모델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기업·관광과 연계한 커머스 채널 운영 △AI 기반 맞춤형 개인화 뉴스레터 도입 등 구독 및 커뮤니티 기반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참가자 모집
경향신문(발행인 박종성)은 7월 9일까지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부문은 개인전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이며, 단체전은 △초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이다. 심사에는 뮤지컬 업계 최전선에 활동 중인 제작사 대표, 교수, 현역 배우, 음악감독 등 전문 심사위원들

이 참여한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한원종 한양대 겸임교수의 마스터 클래스 특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아일보, ‘2026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는 ‘2026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 참가자를 선착순 300명 모집한다. 이 행사는 전국 초등 5·6학년, 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K-배터리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에 대한 강의와 ‘포항가속기연구소’ 견학 체험, 배터리를 활용한 제작 실험·실습도 진행된다. 7월 한 달간 온라인 강연에 이어 8월 6~7일 이틀간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머니투데이, ‘2026 금융소비자권익대상’ 공모
머니투데이(발행인 강호병)는 오는 26일까지 금융회사와 금융인을 대상으로 ‘제4회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한다. 이 상은 금융소비자 권

익 증진에 앞장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격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자 만들어졌다. 시상은 △금융소비자 권익대상 △소비자권익상품상 △불법금융피해예방상 △소비자교육상 △금융분쟁조정상이다. 문의는 머니투데이 금융부(02-724-0914).

세계일보, ‘제32회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후보 추천
세계일보(발행인 이기식)는 7월 24일까지 ‘제32회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분야는 농업과 수산업이다. 시상 내역은 분야별로 대상과 우수상이 주어지며, 공통(농·수산업) 부문 △대상(1개 단체) △특별상(1명)도 수여한다. 상금은 △대상(1,000만 원) △우수상(500만 원) △특별상(200만 원)이다. 접수 및 문의는 세계일보 대외협력국 세계 농·수산업기술상 담당자(02-2000-1574~5).

중앙일보, ‘2026 재테크트렌드페어’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2026 재테크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거시경제 전망 △국내증시 △ETF △글로벌 투자 △부동산 △가상자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8천 원이며 온라인 사전등록 시 무료이다. 신청은 재테크트렌드페어 홈페이지(joongang-itf.com) 또는 QR코드로 가능하다.

한겨레, ‘제5회 사람과디지털포럼’ 개최
한겨레(발행인 박찬수)는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사람과디지털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AI 시대, 일과 학습의 미래’이며, 신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 △세라 오코너 파인셀타임스 부편집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한국경제, ‘한경 머니콘서트 2026’ 개최
한국경제(발행인 조일훈)는 오는 25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한경 머니콘서트 2026’를 개최한다. ‘자산 대이동의 시대, 어디에 올라탈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머니콘서트에는 주식, 부동산 등 각 투자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참가자는 선착순 250명 모집하며 신청은 머니콘서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보이는 데이터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잡아내는 힘!
올타리 안의 정보만이 아닌 살아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힘!
신문을 읽는 것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